

2017년 4월 교육청 선별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새는 알에서 태어나기 위해 싸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자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시중에 대출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한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앞 시기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 지표를 사용했다.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 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추가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①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금융기관 유동성)’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협의통화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바뀔 수 있기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였다.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에,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까지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등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된다. 다만 이전 지표의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Lf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협의통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통화 지표는 통화량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22.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유동성의 의미
- ② 지급준비금의 용도
- ③ 통화량 파악의 필요성
- ④ 국가별 통화 지표의 종류
- ⑤ 우리나라 통화 지표의 변화

23. ㉠에서 강조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화 지표에 맞도록 금융상품의 만기와 이자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통화 지표를 변경하여 예금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③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
- ④ 현금과 예금 상품을 분리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⑤ 경제 주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지표를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김 씨는 중앙은행에 사무 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A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A 은행은 이 예금 중 1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90만 원을 이 씨에게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받은 90만 원을 모두 B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B 은행은 이 예금 중 9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81만 원을 박 씨에게 대출했다. 박 씨는 대출받은 81만 원을 모두 C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중앙은행이 김 씨에게 공급한 100만 원의 통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

- ① 1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② 18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③ 2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④ 29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⑤ 3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같은 상황에서 ㉡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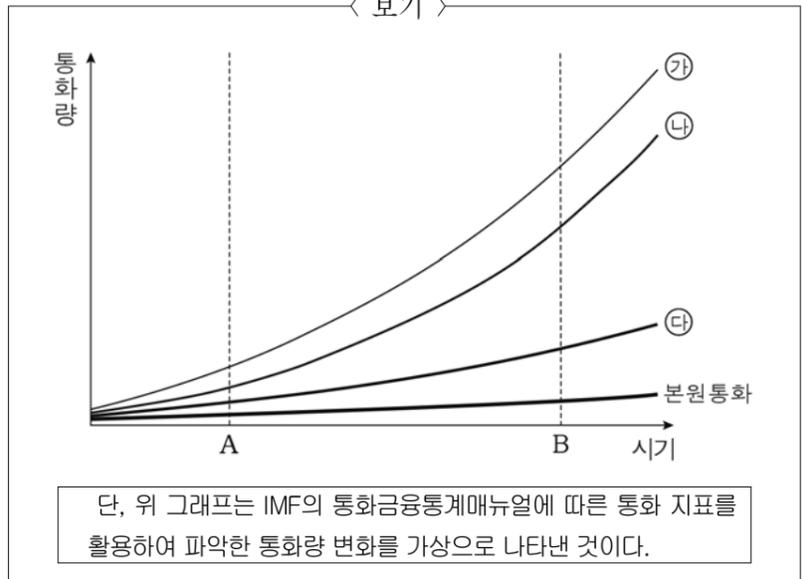
< 보기 >

㉠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 통화승수가 하락했다.

- ①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 ② 파생된 통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본원통화가 줄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 ④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 ⑤ 지급준비금이 줄어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26.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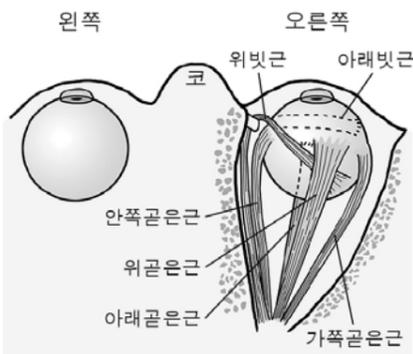
- ① ㉠은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군.
- ② ㉣은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겠군.
- ③ ㉣에 비해 ㉠은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겠군.
- ④ ㉡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결과이겠군.
- ⑤ A와 B 시기의 통화승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통화 대비 ㉣의 통화량을 파악해야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오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안구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데,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면

위곧은근이 수축되고 이에 ㉢ 상응하여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곧은근은 이완된다. 또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 볼 때,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가쪽곧은근이 수축되고 그 수축된 정도만큼 그 눈의 안쪽곧은근은 이완된다.



[그림]

한편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안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곧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곧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곧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곧은근이 수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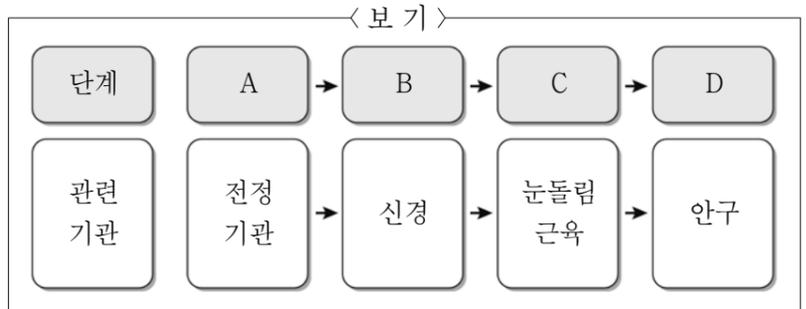
그렇다면 전정안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등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 감지한다. 또한 귓속 수평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그림]에서 위빗근은 도르래신경, 가쪽곧은근은 갓돌림신경, 나머지 근육은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서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

* 중심오목: 망막의 가운데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의 한 부분.
* 전정기관: 속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2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정안반사는 안구 운동 중 하나이다.
- ② 사람의 한쪽 눈에는 6개의 눈돌림근육이 있다.
- ③ 사람이 움직이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전정안반사가 나타난다.
- ④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 ⑤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의 운동 방향은 동일하다.

28. <보기>는 ‘전정안반사’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단계에서 흥분 신호가 생성된다면, C 단계에서는 눈돌림근육 중 일부가 수축되겠군.
- ② 몸이나 머리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 단계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정기관은 등근주머니이겠군.
- ③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인다면, A 단계에서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생성되어 B 단계의 신경에 전달되겠군.
- ④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C 단계에서 아래곧은근이 수축하여 D 단계에서 물체의 상이 망막의 중심오목에 맺힐 수 있겠군.
- ⑤ C 단계에서 위빗근이 작용하여 D 단계의 안구 운동이 발생했다면, 도르래신경이 전정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았겠군.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정면의 눈높이에 있는 작은 공을 계속 보면서 머리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평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였을 때, 오른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한다.

(단,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 의자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②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③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④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⑤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30.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게
- ② ㉡: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되어
- ③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어
- ④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 ⑤ ㉤: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린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C]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D]

- 문정희, 「찔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강씨 상서가 집에 없음을 기뻐하여 월을 불러 날로 구박하며 눈앞에 잠시도 쉴지 못하게 하고, ㉠ 음식을 먹이되 독약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알고 먹으라 하며 박대가 자심한지라.

강씨 일일은 월의 없음을 괴히 여겨 후원에 가보니 차영을 데리고 서로 우는지라. 대로하여 고성 대책 왈,

“너희 노주*가 무슨 모함을 의논하느냐.”

하고, 무수히 치며 두 발을 끌고 의복을 찢으며 형벌하고, 또 차영을 잡아내어 꾸짖어 왈,

“네 나와 무슨 혐의 있어 노주 의논하고 흉계를 꾸미고자 하느냐. 너 같은 녀은 죽이리라.”

하고 형구 차려 형틀에 올려 매고 무수 난장하여 제정으로 끌어내어 협실에 가두고 분부하되,

“너희 다시 소저와 상대하는 자는 즉시 죽이리라.”

하니, 차영이 또한 기절하여 아무 말도 못하더라.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뉘가 알며, 음식인들 뉘가 권하리오.

이때 용이 제 밥을 가지고 누이 앞에 놓고 간권하니, 소저가 어찌 먹고 살고져 하리오마는 어린 동생이 권하는 정을 생각하고, 또 부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원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친으로 하여금 비회를 끼쳐 눈물을 지시게 하리오. 나의 사생은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용의 일신이 부모에게 중한 몸이라. 내 죽으면 여액이 다 용에게 미칠 것이니 어찌하리오. 또한 내 죽으면 불효막대할 것이니, 근근 보명하였다가 부친 오심을 기다림이 옳다 하고, 용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먹고 밥을 당하매, 불기 없는 빈방에 남매 서로 붙잡고 밥을 새우더니, 용은 어린 것이라 잠을 자나 소저는 만신이 아파 견디지 못하여 소리는 아니하고 앓고 누웠더니, 이때 강씨 생각하되

㉡ “이때를 지내면 다시 설치*할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라.”

하고 월의 자는 방에 들어가니, 소저가 홀로 엎어져 앓는 소리 나거늘 문을 열고 들어가 꾸짖어 왈,

“이 아이년아, 누구를 모함하려고 누웠느냐. 너 같은 자식은 보기 싫으니 바빠 나가고 눈앞에 보이지 말라.”

하는 소리 추상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강씨의 구박으로 어룡 남매는 집에서 쫓겨나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후 어룡은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술과 무예를 배워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월은 윤 시랑의 양녀가 되어 임선과 결혼한다. 한편, 어룡 남매를 찾아 집을 나섰던 상서는 기이한 꿈을 꾀다.

이때 날이 이미 저물고 갈 길이 바이 없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실혼한 사람같이 앉았더니, 또 비몽사몽간에 아까 보이던 도사가 다시 이르되,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급히 황성으로 가라.”

하고 간 데 없거늘, 상서가 깨어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사례한 후,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죽림 도원 ㉢ 본집으로 가니, 집은 여구하나 장원이 퇴락하고 후뜰에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 자취 그친 지 오랜지라.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여 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래라.

학사 마음을 진정하고 두루 살펴보니 노복 등도 다 사냥하고 다만 차영이 홀로 있다가 상서를 보고 반겨 복지 통곡 왈,

“노야 어디로 다니다가 이제 오시니까.”
 하며 못내 슬피하다가, 다시 여쭙오되,
 “소저와 아기 용을 찾아 보아 계시니까.”
 하며 반감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서가 차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차영아, 그간 몸 성히 잘 있었느냐. 난 여러 해 돌아다니되 월의 남매를 보지 못하고 왔노라.”
 하시니, 차영이 상서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이윽히 앉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왈,
 “그러하오면 어디로 가 죽었는가 아닌가. 진적 유무를 알 수 없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노야 나가신 후에 나라에서 한림으로 패소*하여 계시오니, 황성이나 올라가사 소저와 공자를 찾게 하옵소서.”
 하거늘, 상서가 내심에 현몽하시던 일을 생각하고 황명을 받자와 택일 발행할새, 여러 날 만에 ㉞ **황정**에 득달하여 천자에게 숙배하온대, 상이 보시고 크게 반기사 좌를 주시고 가로되,
 “경의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난단 말을 들었더니 그간 만나 보았는가.”
 하시거늘, 상서가 복지 주왈,
 “소신의 불초한 자식이 있사옵더니, 나이 어려 우연 집을 떠나 나아가 우금 십여 년이 되옵되 종적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슬픈 빛이 나타나거늘, 상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가라사대,
 ㉟ “금번 북흥노 병란에 경의 아들 곧 아니어던 종묘와 사직이 위태하고 짐의 몸이 마칠 것을 하늘이 도우사 경의 영자를 만나 북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 공을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좌승상 어룡을 급히 명초*하시니, 이때 승상이 부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전지도지*하여 나오더니, ㊱ 나라에서 부르심을 듣고 급히 예궐 숙배하온대, 상이 인견하시고 가라사대,
 “지금 경의 부친을 대하면 그 얼굴을 능히 기억할소냐.”
 승상이 대왈,
 “어려서 아버지를 이별하였사오나 지금도 그 형용이 주야 눈에 있나이다.”
 하고 설위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이 그 사친지정이 절로 골수에 맺힘을 불쌍이 여기시고, 상서와 대면케 하시니, ㊲ 승상이 부친 앞에 나아가 엎어져 실성 통곡하며 말을 이루지 못하거늘, 한림이 혼미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치 못하고 묵묵히 앉았다가, 이윽한 후 정신을 차려 용의 손을 잡고 가로되,
 “네가 진정 나의 아들 용이냐 아니냐.”
 하며 안고 서로 슬피 우니,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퍼할러라.

- 작자 미상, 「어룡전」 -

* 노주: 노비와 주인. * 설치: 치욕을 씻음.
 * 패소: 임금이 신하를 급히 만나야 할 때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는 경우.
 * 명초: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 전지도지: 앞드러지고 굽드러지며 몹시 급히 달려가는 모양.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룡전’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을 다룬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로 고통을 받던 전처 자식들은 가장이 부재한 시기에 가정에서 쫓겨난다. 이후 주인공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출세함으로써 가족과 재회하고 가정을 회복한다. ‘어룡전’의 특이한 점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군담 화소가 계모형 가정 소설에 결합되어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 ① ㉠: 전처 자식에 대해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군.
- ② ㉡: 가장이 부재한 시기를 틈타 전처 자식을 쫓아내려는 계모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③ ㉢: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군담의 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군.

4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는 ‘상서’가 기대감을 갖고 향하는 공간이다.
- ② ㉠와 달리 ㉢는 ‘상서’가 권위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③ ㉢와 달리 ㉠는 ‘상서’가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서 정보를 제공받는 공간이다.
- ⑤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4	2	3	4	5	2			
6	2	7	8	9	5	1			
11	4	12	3	13	1	14	4	15	1
16	3	17	1	18	3	19	3	20	5
21	5	22	4	23	3	24	3	25	4
26	4	27	5	28	4	29	3	30	5
31	4	32	3	33	5	34	2	35	2
36	4	37	5	38	5	39	2	40	4
41	2	42	3	43	5	44	4	45	4

[화법]

1.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발화 특성 분석하기

B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 2의 두 번째 발언에서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 이용이라는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설문 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을 뿐,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을 뿐, 응답자의 참여 태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1의 두 번째 발언에서 전체 설문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설문 조사의 실시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에서 설문 문항을 줄여야 한다는 다른 학생의 대안에 일부 동의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의 '먼저 기존 설문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언의 '그렇다면~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발언의 '지금부터는~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를 통해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며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토의 내용 파악하기

학생 1은 두 번째 발언에서 서술형 문항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제시된 설문지에는 실명기재란이 없는데,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과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에서 실명 기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의 두 번째 발언과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에서 설문문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안내 문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시된 설문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시된 설문지에는 4번 문항과 4-1번 문항으로 단계적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과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에서 단계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에서 기존 설문지의 서술형 문항은 문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질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시된 설문지의 4-2번 문항은 구체적으로 응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4.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 대상인 해법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단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으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라는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먹거리의 파수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3문단의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에서 우리나라가 해법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드러나 있으므로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 7개 의무 적용 품목군 중 일부만 제시되었을 뿐 확대 적용 품목은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위해 요소에 대해 언급했을 뿐, 위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아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 3년에 한 번씩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의 전략 파악하기

첫째 문단의 '영화, 방송, 소설 등의 스포일러라고 한다.'에서 스포일러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스포일러가~의견도 있다.'는 앞 문장의 반론에 해당하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대부분이다.'는 재반론에 해당하며, '방산의 일각'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① '프로그래밍 제작자가~느끼기 때문이다.'는 반론에 해당하나, 재반론이 없고 비유적 표현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달콤한 미끼'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잘못된~마땅하다.'는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지만, 비유적 표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㉞은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스포일러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설문 조사 결과 73%의 누리꾼이 스포일러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첫째 문단에 제시된 스포일러에 대한 누리꾼의 부정적 인식의 근거로 적절하다. ② 자신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글의 제목에 미리 제시해 준다면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스포일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이 어려운 이유로 적절하다. ⑤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은 의도적 스포일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스포일러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주요 전략 파악하기

글의 구상에서 밝힌 그릇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비교'는 초고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나는 포기하려 했던~즐거움까지 했다.'에 나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어려분도 무엇인가~좋았다.'에서 실천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그녀가 강조한 것은~역설했다.'를 통해 강연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그런데 강연을 통해~깨달았다.'고 하여 강연 이후 생각이 변화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그녀가 강조한 것은'과의 호응이 적절하므로 '그것이'라고 주강했다'로 바꾸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조사로 '에'라는 부사격 조사로 수정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그것에 대해 깨닫고 이를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것'의 접속어 '그러나'를 인과의 접속어 '그래서'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떠올리고'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을 첨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 '물히고'에서 '물-'은 받침이 'ㄷ'인 형태소이고, '-히-'는 접미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보기 1>에 근거할 때, '물-'의 'ㄷ'이 '-히-'의 'ㅎ'과 결합하여 [트]이 된 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ㅈ]으로 교체되어 [무치고]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① ㉠은 '물-'에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물-'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고, '날'의 받침 'ㄷ'은 [ㅈ]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이불'은 실질 형태소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띄어쓰기 탐구하기

㉢에 사용된 '집어먹다'는 국어사전에 '집어먹다 ㉠'로 등재된 합성 동사이다. (가)에 따르면 합성 동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고,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할 경우 두 용언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를 참고할 때 ㉡은 국어사전에 '집어먹다 ㉡'로 등재된 단어이므로 합성 동사이다. (가)에 따르면 합성 동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② ㉣은 뒤의 용언 '먹었다'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은 '분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분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은 '분용언 + 분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에 용언 '먹었다'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분석하기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알려 줬다'의 주어는 '그녀'이다. 그리고 명사절인 '제자가 상을 받았음'에서 '받았음'의 주어는 '제자'이다. 또 관형절인 '그가 아끼던'에서 '아끼던'의 주어는 '그'이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㉔은 서술의 객체인 '聖宗(성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한 어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는 문장의 주어인 '聖孫(성손)'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표현에 의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는 동작의 주체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각각 선어말 어미 '-시-'와 '-이-'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 아버지를 뵈고 왔습니다.'에서는 '아프셔서'의 '-시-'를 통해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즉 '허리'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다. 또 '왔습니다'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를 사용했다. 그리고 '뵈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인문]

[16~21] <출전> 오병남, 「미술평 강의」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의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를 보면 플라톤은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테크네가 아니라 '이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를 보면 적절하다. ② 3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1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와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를 보면 적절하다. ⑤ 2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를 보면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의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를 보면 적절하다. ④ 5문단의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⑤ 5문단의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를 보면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특정 대상에 대한 철학자의 관점 파악하기

4문단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시가 엔투시아스모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엔투시아스모스가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시를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3문단의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다.'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을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실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 낼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 회화, 조각을 모두 지적 능력인 테크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4문단의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건축의 가치를 조각과 회화의 가치보다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를 보면 플라톤은 조각과 회화를 제작할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4문단의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회화가 실물인 건축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서로 다른 두 관점 비교하기

4문단의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와 <보기>의 '세상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를 보면 플라톤과 세간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㉔은 문맥상 '어떠한 근원에서 발생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새 상품이 시장에 나타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겉으로 드러내

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안에서 밖으로 오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

[22~26] <출전> 정은관·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실질인 유동성'이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 준비금으로 남고'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통화량이 물가변동과 실업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2003년을 기점으로 통화 지표가 변화하였다고 하였고, 2003년 이전과 이후에 달리 사용된 통화 지표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3문단에서 2003년 이전에는 '통화'와 '총통화'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총유동성'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주로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표를 나누었다. 그러나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새로 나온 통화지표에서는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중에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은 '협의통화'에 포함시켰고,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은 '광의통화', 유동성이 매우 낮은 상품들은 'Lf'에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것이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100만 원이 A은행에 예금된 후 이 중 90만 원이 대출되어 190만 원으로 통화가 늘어났다. 또 대출된 90만 원은 다시 B은행에 예금된 후 이 중 81만 원이 대출되었으므로 271만 원으로 통화가 늘었다. 다만, 대출되었다가 곧바로 각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그만큼 시중의 현금이 줄어든 셈이므로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2문단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신용창조가 일어나 통화량이 본원통화보다 몇 배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출을 제한하면 통화승수가 하락하므로 적절하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면 통화량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통화의 파생은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금을 대폭 늘렸다고 하였으므로 본원통화가 줄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대출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고 하였고, 협의통화에 포함된 통화의 종류가 가장 적고, 광의통화와 Lf로 갈수록 포함되는 통화의 종류가 많

아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기>의 그래프도 IMF의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했으므로, ㉠은 Lf, ㉡는 광의통화, ㉢는 협의통화라고 할 수 있다. 3문단에서 광의통화에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Lf는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협의통화에는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본원통화에서 증가된 통화량의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통화승수는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27~30] <출전> 윤동호 외, 「안과학」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의 '수평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에서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의 운동 방향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와 3문단의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감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의적 증거에 따라 내용 추론하기

3문단의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쪽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쪽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에서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C단계에서 아래쪽은근이 아닌 위쪽은근이 수축됨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와 '충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릿속의 둥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 감지한다.'와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와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 신경에 전달된다.'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와 '위쪽은근은 도르래신경, ~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의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쪽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쪽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와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은근이 수축된다.'에서 눈에서의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

의 사례는 머리를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오른쪽 눈에서는 안쪽은근이 수축을 하고 가쪽은근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가쪽은근이 수축을 하고 안쪽은근이 이완한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감지하다'는 '느끼어 알다.'라는 의미이고, '어떤 기호나 정세를 알아차린다.'는 '포착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31~33] <출전> 한용운, 「수의 비밀」
문정희, 「썰레」

31.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에서,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름이 출렁거리'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 (나) 모두 병암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가 대상의 부채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제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보기>의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는 화자가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행위의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임이다'에는 화자가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및 기능 비교하기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뾰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에 [C]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서 있고 싶다'는 [B]와 [D]에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정서를 의미하고,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통해 꽃이 되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을 알 수 있고, [D]에서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를 통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의 화자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시나리오]

[34~37] <출전> 박경리, 「토지」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에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구절을 통한 서사 내용 파악하기

서사 전개 상 '오랜 시일 이별'은 윤씨 부인이 절에 가서 치수와 이별하게 된 시간임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 위해'와 '무거운 굴레를 둘러 쓴'은 치수가 의도적으로 재산에 무관하려 하자 윤씨 부인이 치수의 재산에 관여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거운 굴레를 둘러 쓴' 것은 치수가 아니라 윤씨 부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은 윤씨 부인의 쇠약하고 늙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로 적절하다.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윤씨 부인과 치수의 갈등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이 절에서 돌아온 후의 차가운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무너졌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남보다 먼 사람'이라는 표현은 윤씨 부인에 대한 치수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원작과 시나리오를 비교 감상하기

[A]에서 '치수는 양 무릎을 ~ 방바닥에 떨어뜨린다.'를 통해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대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시선은 방바닥에 떨어뜨려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이불의 소품은 '차렵이불의 갈매빛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배우의 목소리는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머리 모양 옷매무새 ~ 변함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다급한 어투는 '마음이 급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이 적용하기

㉠에서 치수는 말로는 사회에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치수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를'을 의미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뜻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고전시가]

[38~42] <출전> 황희, 「사시가(四時歌)」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사시가는 일반적으로 ~ 노래를 뜻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부분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 적합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사시가는 ~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유사한 측면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찾기

(나)의 <2수>에서 '깨우는구나', <4수>에서 '김도다'와 (다)의 <후>에서 '피웠구나'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에는 부르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 (다)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 (다)에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 (다)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형식 파악하기

(다)의 <춘2>와 <동1>에서는 봄과 겨울이라는 일 년 사시가 드러나지만 그 안에 하루의 사시인 아침, 낮, 저녁, 밤이 모두 포함된 형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밝히고 있고 <2수>에서는 '녹음'을 통해 여름을, <3수>에서는 '벼 벤 그루터기'를 통해 가을을, <4수>에서는 '눈'을 통해 겨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일 년 사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일 년 사시인 사계절만을 나열하고 있고,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하1>에서 '녹음'에서 여름의 이미지를, '낮'에서 낮의 이미지를 알 수 있고,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 온다'를 통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A]의 '역군은이샷다'에서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사대부층의 의식이 드러나 있어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그물 잡고', '산전을 훑매'는 것은 노동의 모습으로,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

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석오자'에서 긴 잠을 자고 일어나고자 노래를 청하는 여유로운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비진 슬 걸러라'에서 슬을 마시며 가을의 흥취를 즐기려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대상의 의미 파악하기

⑤는 '낙담에 재미가 김도다'를 통해, ⑥는 '새해 온다 즐겨 마라'라는 화자의 충고를 통해 모두 현재의 상황에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④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⑤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⑥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⑥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43~45] <출전> 작가 미상, 「이몽전」

4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누가 알며'와 '이윽한 이후~안고 서로 슬피 우니,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피할러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의 말인 '금번 북흥노 병란에~복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집은 여구하나~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비몽사몽간에~하고 간 데 없거늘'에서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승상'이 '상'의 부름을 받고 급히 대궐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군담 화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①은 '장씨'가 '월'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독약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알고 먹으라고 박대하는 장면이므로 적절하다. ② ①은 '장씨'가 이때를 기회삼아 '월'과 '용'을 내뱉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 시기는 상서가 집에 없는 때이므로 적절하다. ③ ③은 '상'이 '상서'에게 '용'이 북흥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자신을 구했다고 말하는 부분이므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⑥은 '승상'이 부친인 '상서'와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므로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상서'는 '본집(㉠)'에서는 '차영'에게 나라에서 한림으로 폐소하여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황성(㉡)'에서는 '상'에게 '이몽'이 나라를 구했다는 정보를 듣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상서'는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본집(㉠)'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황성(㉡)'에서 '상서'가 권위자인 '상'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본집(㉠)'과 '황성(㉡)'에서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